

## 2022년 메타천 교구 체키오 주교님 부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우리 교구 형제 자매님들께 부활절 인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절은 교회 전례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주간과 성삼일인 성 목요일, 성 금요일, 부활 성야는 인류 구원을 위한 성스러운 사건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시간입니다. 부활대축일은 진정으로 희망의 대축제입니다. 물론 우리의 위대한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믿는 이들을 위한 영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초자연적인 미덕으로, 모든 것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희망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직접 섭리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의 팬데믹을 잘 견뎠던 것처럼 희망은 올해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도 그러한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은 그런 시기에 우리를 돕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합니다. 희망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믿을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수난 전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기 위해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 때, 우리는 교감하는 것, 그 교감을 파괴하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기만, 배신, 폭력, 비겁함.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과 모든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끔찍하지만 멋진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희망의 성찬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던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 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체를 필요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성체성사와 부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바로 희망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심지어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신, 순진함,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결정인 것입니다. 이 결정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을 초월하는 것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입니다.

이번 부활대축일 미사 전례 복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사도 요한 성인의 복음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우리는 빈 무덤으로 갑니다. 우리는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들이 되어,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고 믿는 쪽을 선택합니다. 똑같은 빈 무덤을 봤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사건을 합리화했고, 심지어 그의 시체가 도둑맞은 것이 틀림없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을 영원히 변화시킨 결정적 사건이지만,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 위대한 사건에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 것이고 부활의 신비로 인해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과 성령강림 이후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세계가 직면했던 힘든 상황들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의 삶 안에서, 혹은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것 입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사랑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평화와 희망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메타천교구40주년 기념행사를 이어가면서 이번 부활절 기간 내내 예수님과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나 성경이나 성당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낼 시간을 더 만들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부활절 기간 내내 우리의 40가지 자비 캠페인을 통해 하느님과의 우정이 그분의 평화와 희망을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힘으로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변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 그 다음 우리의 기도와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변모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희망이 필요한 시기에 희망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선택합시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기도를 알아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대축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우리 교구를 예수님의 부활로 환희에 가득 찬 성모 마리아께 맡깁니다.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

주교 제임스 체키오

주님 부활  
대축일

2022년  
4월 17일



###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00 PM

수 ~ 금 - 9: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00 PM

일요일 (영어) - 9:00 AM

(한국어) - 11:30 AM

###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 Tel: 732-356-1037

# Email: office@edisonkcc.org

#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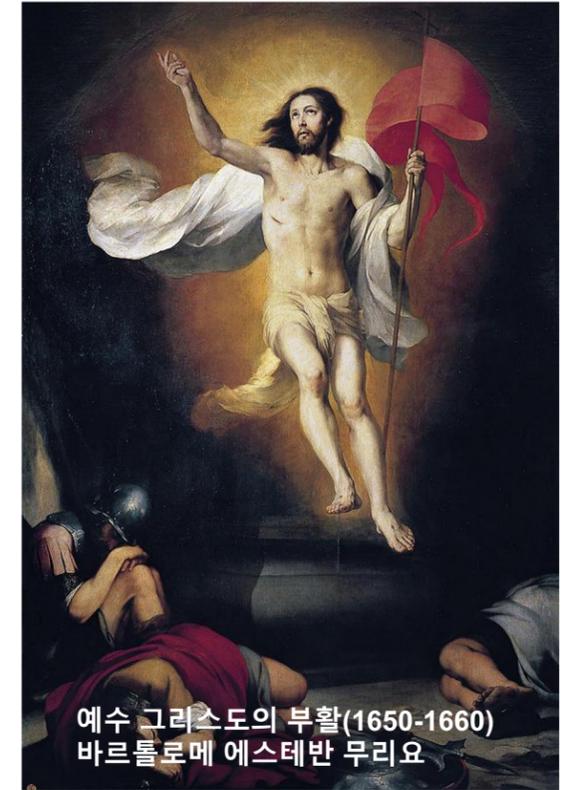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1650-1660)  
바르톨로메 에스테인 무리요

### <이번 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사도행전 10,34-37-43

# 화답송 시편118(117),1-2.16-17.  
22-23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2독서 사도 바오로 콜로새서 3,1-4

# 복음환호송 1코린 5,7.8 참조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음 요한 20,1-9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주간 전례 말씀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04/18/22	사도행전 2,14.22-33	마태오 28,8-15
화요일 04/19/22	사도행전 2,36-41	요한 20,11-18
수요일 04/20/22	사도행전 3,1-10	루카 24,13-35
목요일 04/21/22	사도행전 3,11-26	루카 24,35-48
금요일 04/22/22	사도행전 4,1-12	요한 21,1-14
토요일 04/23/22	사도행전 4,13-21	마르코 16,9-15
일요일 04/24/22	사도행전 5,12-16	요한 20,19-31
	요한 묵시록 1,9-19	

**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 홍사총(베로니카)	- 이규옥(울리안나)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 박병희	- 김 스텔라
• 정영옥(수산나)	- 가족
• 심현태	- 가족
• 정해자	- 이은숙(가브리엘라)
• 박 요한, 지 레아	- 박재영(요아킴)
• 이동현(요셉)	- 가족
• 이순희(모니카)	- 김규희(카타리나)
• 이옥희(마리아)	- 김규희(카타리나)
• 백 안토니아, 백 비오	- 염 세실리아
• 최동순	- 오 세실리아
• 대녀 정수산나	- 오 세실리아

생미사	- 봉헌자
• 허기욱(바오로)	- 오경선(원선시오), 박재영(요아킴)
• 오경선(원선시오)	- 이희숙(데레사)
• 전옥주(글라라)	- 이희숙(데레사)
• 김옥전	- 정길예(프란체스카), 김태경(카타리나)
• 임혜인(로사) 가정	- 김규희(카타리나)
• 임상순(유스티노) 가정	- 김규희(카타리나)
• 조재익(야손)	- 문세라(에스텔), 채희백(바오로), 허정(아나스타시아)
• 문세라(에스텔)	- 허정(아나스타시아) 채미영(데레사), 피스브릿지 구역

**주일 헌금**

주일미사 참여 148명	합계 : \$1,565
2차헌금 (은퇴사제)	합계 : \$1,542

**교무금 납부 안내**

김정숙(3-5)	이대우(3-4)	추승호(3-4)
오용운(4)	김진(4-5)	박락준(4)
임안나(4-5)		합계: \$1,400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공지사항**

- # 2차헌금
  - 4월 24일: 유틸리티
  - 4월 24일: 마더스데이 리멤버런스 미사 신청
- # 이번 부활 성야에 세례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새신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새 신자 명단 : 문세라(에스텔), 조재익(야손)
- # 부활포장마차
  - 부활 대축일 미사 후 부활포장마차가 있습니다.
  - 각 친목단체에서 준비한 음식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장소: 성당 뒷편 주차장
  - 메뉴: 오뎡, 떡볶이, 제육볶음, 족발 및 주류 등
- # 주일학교 에그헌팅
  -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그헌팅 및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4월 17일 (주일) 미사 후, 성당 잔디밭
- # 통합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4월 20일 (수요일) 오후 7시 친교실
- # Holy Name Society봄맞이 50/50 Raffle 행사
  - 미 공동체 남성 신심단체 Holy Name Society에서 봄맞이 50/50 Raffle 행사를 개최합니다. 티켓은 장당 2불이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장에게 연락바랍니다.
  - 추첨 일시 및 장소: 4월 30일 (토) 오후 5시 15분, 친교실
- # 기획분과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1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제 78차 미동북부 ME 부부주말
  - 일시: 5월 28일 (토) 저녁7시 ~ 30일(월) 오후 5시
  - 장소: 헌팅턴 수도원, 롱아일랜드
  - 신청: 미동북부 대표 김정현 요한, 류정아 아녜스 부부 917-415-4200, johannesMENY@gmail.com
-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진료 및 영성 상담
  - 부제님과 의료 및 영성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매 주일 미사 후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친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2022 Bishop's Annual Appeal**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목표금액은 \$35,000 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4/4까지 약정 금액은 \$30,730 (목표금액의 87.8%, 94가정 참여)입니다.

**제 1독서 <사도행전> 10,34-37-43**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 콜로새서> 3,1-4**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광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게 믿사오니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요한 복음> 20,1-9**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